

예비수험생, 한국사에 발목 잡히지 말자

수시와 정시 평가에 모두 반영 ... 학습 소홀히 하지 말아야 절대평가지만 어렵게 출제되면 등급 비율 크게 감소할 수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현 고2 학생들도 본격적인 '수험생 모드'에 들어갔다. 예비 수험생들에게 다가오는 겨울방학이 '전환점'이자 자신만의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입시전문가들은 예비 수험생들에게 한국사 학습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한국사가 수시와 정시 평가에 모두 반영되는 영역이자,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일정한 등급 확보를 위한 학습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 쉬운 시험일까?=9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여기에 수시와 정시 모두 평가에 반영돼 일정한 등급 확보가 필수다.

우선 한국사는 9등급제 절대평가로 50~40점까지가 1등급이며 39점부터 5점씩 등급이 떨어진다. 점수 체계로만 본다면 딱 절반인 25점만 맞아도 4등급이며, 여기서 한 두 문제를 더 맞힌다면 3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평가의 맹점은 시험의 난도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2018학년도 수능을 들 수 있다.

당시 수능에서 한국사 영역이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됐고, 1~4등급의 분포하는 학

생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평소 한국사의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3등급과 4등급 경계의 점수를 받던 수험생들은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에서는 필수 과목인 한국사를 까다롭지 않게 출제하고자 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2018학년도 때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변수를 배제할 수 없어 예비 수험생은 한국사 학습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사 최저학력기준 포함=한국사는 수시와 정시 모두 활용될 수 있다.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한국사가 포함될 수 있다.

상위권 대학들은 한국사 3~4등급 정도를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고려대는 모든 전형에서 인문계열은 한국사 3등급, 자연계열은

한국사 4등급 이내로 받아야 한다.

정시의 경우 대학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전체 총점에서 한국사 등급별 점수를 가감하거나 수능 반영 비율에 한국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경희대의 경우 모든 계열에서 한국사가 5%가 반영된다. 그리고 등급별 점수를 살펴보면 인문은 3등급까지 반영되며 자연은 4등급부터 감점이다.

그 이후에 5~6점씩 감점이 되고 선호가는 대학일수록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사로 인한 감점은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한국사가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역까지의 아니지만 합격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대, 자기주도학습 우수 사례 공유



67팀 260명 학생들이 참여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교수학습연구원은 최근 '2019학년도 2학기 학습 우수 사례 발표 경진대회 / 자기주도적 학습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지난 4일 열린 '활동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유아교육과 윤혜원 학생 등 8개 팀이 참여, 학습 우수 공동체 활동 사례와 성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다.

한규무 교수학습연구원은 "성과공유회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학습 우수 멘토링과 창의·전공학습 우수 공동체, 생활관 학습 우수 멘토링 부문에 총 67팀 26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성과 등을 발표하며 경쟁을 펼쳤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숲 사진전' 신기한 유치원생들 9일 광주시 남구 조하유치원 학생들이 남구청사 1층에서 열린 '2019 남구 숲 교실 사진 전시회'를 찾아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시 남구 제공>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컨퍼런스·담당자 연수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여수 오션힐에서 '2019 민주시민교육 컨퍼런스 및 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노동인권교육 담당자 및 참여회합 교원·시민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첫날 '문화와 인권 2019'를 주제로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조강연을 시작한 이후 둘째 날 정유숙 세종 소담초 교사가 '학교, 시민의 요람'을 주제로 학생자치와 학교자치 활성화 사례를 발표했다.

또 컨퍼런스는 3개의 세션으로 운영됐다. 각 세션은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

교육, 학생자치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나누어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지역의 특색 있는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오경미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은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며 "각 세션을 통해 도출된 방안들이 학교 현장에 잘 여우러져 특색 있는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동강대, 입학성적 우수자 입학 ~ 졸업 전액 장학금

동강대학교가 설립자의 '후학 양성' 유지를 받들어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강대는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장원문화재단 장학금을 기존 학과별 추천 학생에게 주던 것을 입학 성적 우수자 등 전액 장학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입학 성적 우수자 등으로 선발된 1~2명에게는 2·3·4년제 학제 제한 없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장원문화재단은 동강대 설립자인 고(故) 이장우 박사와 고 이원모 이사장이 '후학 양성에 힘쓰라'는 뜻에서 사재 50억 원을 기부해 설립자 2명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따 2004년 설립됐다.

이민숙 동강대 총장은 "설립자 유지를 받들어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자는 의미로 재한 기간 전액 장학금 지급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겨울 독서교실' 참가자 모집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관장 박치홍)은 오는 2020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겨울 독서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겨울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 25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참가자 모집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기념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내가 사는 지구 여행'을 주제로 운영하는 독서교실은 도서관 이용법, 내가 살아

가는 지구 속 탐험하기,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 리포터 인터뷰 하기, 아메리카 대륙 브레인 스토밍, 회전문마 토론, 내가 가고 싶은 곳 여행지도 만들기, 지리골든벨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활동에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찾은 엄마의 숨결(고은애), 황금으로 만든 나라는 왜 사라졌을까?(김호경), 영무세의 부활(에두아르도 갈레아노) 등 3편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2020학년도 새학년 집중 준비 나섰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20학년도 교육과정 준비에 나섰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나주 동신대학교 대정3관 투게더홀에서 '2020학년도 중학교 수업혁신으로 완성해가는 교육과정' 연수를 가졌다.

연수는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꾸러졌다.

교육평론가 이범의 '교육정책과 직업 세계의 변화' 특강, 과정중심 학생평가와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 운영 우수사례 발표, 공정한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

부 작성 및 관리 요령 안내 등이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참석자 중학교 교감, 교무부장, 교육과정부장 등에게 '2020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연수'를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핵심역량을 키워줄 배움중심 수업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2020학년도 실질적인 수업혁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

손해보험협회 로고와 다양한 보험사 로고 (Meritz, Hanhwa, MG, Heungkuk, Samsung, AIG, KB, DB, AXA, BNP, The, K, TMA 등)가 표시되어 있습니다.